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3.21.(월) 16:00	배포 일시	2022. 3.21.(월)
담당부서 <공동>	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	책임자	과 장 윤세영 (042-481-8197)
		담당자	사무관 최고숙 (042-481-5568)

농업기술 ·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(ODA)

협력으로 동반상승(시너지) 확대

특허청 · 농촌진흥청 간 공적개발원조(ODA) 업무협약(MOU) 체결

(협력형 농업기술개발 공적개발협력 가상사례) 농촌진흥청은 도미니카공화국에 적합한 한국 벼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함. 특허청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벼를 도정할 수 있는 소형 도정기를 적정기술*로 개발하고 도정된 쌀을 브랜드화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농가 수익이 증가하도록 함.

* 적정기술이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기술로 첨단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구현, 유지할 수 있어 최빈국·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과 농촌진흥청(청장 박병홍)은 3월 21일(월) 16시 정부대전청사 멀티미디어실에서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융합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이하 ODA)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○ 이로써 양 기관은 농업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협업으로 개도국에서 한국 ODA 위상이 높아질 계기를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, 농촌진흥청의 「해외농업개발사업(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, 이하 KOPIA)*」과 특허청의 「지식재산 나눔사업**」을 연계하여 개도국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물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, 소득증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.

*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(소장, 전문가, 연구원 등)를 파견하여,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·실증·보급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KOPIA 센터를 설치·운영함.

**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을 통해 개도국 현지 문제를 해결하고, 브랜드 전략을 통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특허청 ODA 사업임.

- 특허청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,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, 가공된 제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제품의 브랜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.
-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22국에 KOPIA 센터를 운영 중으로, KOPIA 센터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적합한 농업 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.
 - 이번 협력으로 양 측은 상호 전문성을 결합하여 농업분야 ODA 융복합 협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활용 및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에 집중할 예정이다.
 - 또한 농업기술 교육부터 농산물 가공기술과 판매를 위한 브랜드화까지 일괄 지원되면,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, 농산물 가공과 브랜드화를 통해 농산물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현지 농업인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김용래 특허청장은 “양 측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전문성을 활용하는 만큼,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 “농업 기술과 지식재산의 연계를 통해 개도국 현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“농촌진흥청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와 지식재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발전에 기대가 크다”고 평가하고,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안정에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공동>	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	책임자	과장 윤세영 (042-481-8197)
		담당자	사무관 최교숙 (042-481-5568)
담당 부서 <공동>	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	책임자	과장 장안철 (063-238-1160)
		담당자	연구관 노형준 (063-238-1170)